

일거수일투족 '참 나' 찾는 화두 들어 대오전성하라

“법상에 오르기 전에 한 말씀 이르고 오르십시오” 하니, 또다시 “장삼자락 보라.” 한 마디 이르고 올라가라 하면, 거기서 우물쭈물할 것 없이 석화전광으로 한 마디 척 이르면 되는데 어째서 그러지 못하느냐, 그것은 당당한 안목(眼目)이 열리지 않은 데에 허물이 있는 것이라, 이 법담(法談)이라는 것은 돌사람도 땀을 흘리고 쇠사람도 땀을 흘린다 했으니 임기응변에 적적 바른 답이 나오기란 천고(千古)에 귀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에는 법신의 진리, 여래선의 진리, 향상의 최고의 진리가 있는데, 이는 향상의 정안(正眼)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향상의 일구의 진리를 투과한 자는 천불만조사(千佛萬祖師)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당한 것이니, 이것이 호활견성(號曰見性)이요, 모든 불조(佛祖)가 면밀히 법을 전한 바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을 갖추지 못하면 만인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에 향곡 선사께서 이 일화를 들어 산승에게 물으시기를, “네가 만약 당시에 고봉 선사였다면, 금오 선사가 장삼자락을 붙잡고 법상에 오르기 전에 한 마디 이

향곡 선사 회상에서 산승이 ‘香嚴上樹話(향엄상수화)’ 화두를 들고 2년 5개월간 씨름해 해결하니 모든 법문에 막힘없이 답이 척척 나왔습니다. 오직 ‘일면 불월면불(日面佛月面佛)’이라는 마조(馬祖) 도인의 법문에 막혀서 또다시 씨름을 했습니다. 5년 만에 화두를 해결해 오도송(悟道頌)을 읊으니,

한 주장자를 휘둘러서 청정법신(淸淨法身) 비로정상을 거꾸러뜨리고(一棒打倒巖頂頭)/ 벽력 같은 ‘할’로써 천만갈등을 다 문대버림이로다(一喝抹却千萬則)/ 두 칸 떠맡자에 다리를 펴고 누웠으니(二間茅庵伸脚臥)/ 바다 위 맑은 바람 만년토록 새롭도다(海上淸風萬古新).

산승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글로 써서 향곡 선사께 올리니 “임제(臨濟)의 가풍이 여기에 다 있구나” 하시면서 법을 전하시었습니다.

향곡 선사께서는 동해안 월내 도관음사(妙觀音寺)에 선원을 개설해 머무르시면서 향상일로(向上一路)의 종풍(宗風)을 크게 선양하셨습니다. 정미년(1967) 하안거 해제법회시에 향곡 선사께서 법문을 내리시기 위해 법상에 올라 좌정해 계시는데, 산승이 나아가 삼배를 올리고 여쭙습니다.

“선사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모든 불조께서 아



선사께서 입증하시기 4월 전의 문답이었습니다. 이때 산승의 나이가 46세였습니다. 향곡 선사께서는 산승에게 “진제(眞際, 산승)는 과거 전생에 이 법정(法庭)에서 많이 놀았던 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남전(南泉) 도인 회상에서는 향시 700여 대중이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고양이 한 마리를 두고 동쪽 선방 대중과, 서쪽 선방 대중이 서로 자기 고양이이라고 주장하며 시비가 분분했습니다.

남전 도인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는 대중을 모두 법당에 모아놓고 사자에게, “고양이를 잡아오고 칼을 가져오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는 고양이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들으시고, “동쪽과 서쪽 선방 대중들이 이 고양이를 두고 서로 자기 고양이라 하니, 금일에 이 고양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르는 자가 있으면 이 고양이를 살려 두거니와, 분명히 이르는 자가 없으면 고양이 두 동강이 내리라” 하시고는,

“일러라! 일러라! 일러라!” 세 번을 물으시는데, 법당에 모인 700여 대중이 다 풀 먹은 병어리라, 남전 도인께서 이르러는 그 뜻을 아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전 도인께서 약속과 같이 칼로 고양이를 두 동강이 내어 던져 버리고는 당시 방으로 돌아가 쉬고 계시는데, 밖에 불일을 보러 나갔던 상수제자 조주(趙州) 스님이 돌아오니, 오전의 일을 들어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이러한 고양이 법문이 있었는데, 그대가 만일 그 대중 석상에 참여했다면, 무어라고 한 마디 하려고?” 하시니, 조주 스님은 머리에 신짚을 이고 방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남전 도인께서, “조주가 당시 있었더라면, 고양이를 살렸을 것이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문을 들어 금오 선사께서는 산승에게 “신짚 이고 나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 하고 물으시니, 산승이 즉시 답하기를,

“태평세월은 원래로 장군으로 만연하여 태평세월이 이루어짐이나(太平本始將軍致) 장군이 태평세월을 보고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합니다(不許將軍見太平)” 하니, 금오 선사께서 멋진 답을 했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스승 없이 깨달았다면 그는 천마외도다 화두일념 지속되면 깨닫는 과정은 찰나

르고 오르라 하면 무어라 하겠느냐?” 하시니, 산승이 문득 벽력같은 ‘할(喝)’을 하셨습니다.

“어허(喝!)” 이게 ‘할’입니다. 이렇게 ‘할’을 하자 향곡 선사께서,

“네가 그러할진대 부산시민의 눈을 다 멀게 하여 가리라” 하셨습니다. 눈 밝은 선지식이 아니면 이렇게 바르게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승이, “소승(小僧)의 허물입니다” 하니, 향곡 선사께서 “노승(老僧)의 허물입니다” 하셨습니다.

남방(南方)과 북방(北方)의 선의 안목의 세계는 이 같이 천지현격(天地懸隔)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사자오(無師自悟), 즉 스승 없이 깨달았다 하는 자는 천마외도(天魔外道)”라고 가풍(家風)을 세워 놓으셨으니, 광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허공보다도 넓은 진리의 세계를 다 보지 못하고 동쪽 한 면만 보고 지방(十方)을 다 보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야만 금생에 이 일을 다 해 마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면 몇 생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눈 밝은 선지식으로 부터 인증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부처님의 심오한 진리를 실행 능력이 없다는 것이니, 만인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신 곳은 여쭙지 아니하거니와, 모든 불조께서 아시지 못한 심오한 진리의 한 마디를 일러 주십시오.”

그러자 향곡 선사께서 “구구(九九)는 팔십일(八十一)이니라” 하시니, 산승이 다시 “그것은 불조께서 아신 진리입니다”라고 답하니 “육육(六六)은 삼십육(三十六)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산승이 가타부타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물러가니 “오늘 법문은 다해 마쳤다” 하시며 아무 말 없이 법상에서 내려와 조실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 산승이 다시 위의를 갖추어서 조실방에 찾아가 물기를 “불안(佛眼)과 혜안(慧眼)은 여쭙지 아니하거니와 어떤 것이 납승(納僧)의 눈입니까?” 하니, 향곡 선사께서 답하시기를,

“나이 많은 비구니 노릇은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니라(師姑元來女人做)”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산승이 “금일(今日)에 비로소 선사님을 친견했습니다” 하니, 향곡 선사께서 물으시기를,

“네가 어느 곳에서 나를 보았느냐?” 이에 산승이 “빛장 관자, 關(關)” 이렇게 답하니, “옳고, 옳다!” 하시고, 전법계를 내리셨습니다. 당시 산승의 나이가 33세였습니다.

진제 법원 장실에 부치노니(付眞際法遠 丈室)/ 부처님과 조사의 산 진리는(佛祖大活句)/ 전할 수도 받

을 수도 없나니(無傳亦無受)/ 이제 그대에게 최고의 산 진리를 전하노니(今付活句時)/ 만인 앞에 진리의 전(傳)을 펴거나 거두거나 그대에게 맡기노라(俟放任自在).

이것은 부처님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풍입니다. 향곡 선사께서 열반 직전 4월 전에 제방을 돌아다니시면서 고준한 법문 하나를 들어 물으셨는데, 부처님의 심인법(心印法)을 이은 중국의 대선지식인 임제 도인의 ‘탁발화(托鉢話)’ 법문이었습니다.

임제 선사께서 하루는 탁발하기 위해 어느 집 대문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니, 한 노보살이 문을 열고는 물으셨습니다. “어찌 왔느냐?” 그러자 임제 선사께서

“탁발하러 왔습니다” 하시니, 노파가 문득 말하기를 “염치없는 중이로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임제 선사께서 “한 푼의 시냇물도 주지 않고 어찌서 염치없다 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노보살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문을 활카닥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임제 선사께서는 아무 말도 않고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법문을 들어서 그 당시에 제방의 조실들을 찾아가서

“그대가 만약 임제 선사 되었다면 노보살이 대

문을 활카닥 닫고 들어갈 때에 뭐라고 한마디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제대도 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한 조실스님이

“옛 도인들이 이 법문에 대해서 평을 하고 점검한 일이 없다!” 하시니, 향곡 선사께서

“고인(古人)들은 한 바가 없지만 한 마디 해 보려면 척 나와야 될 거 아닌가?” 하고 다그치니, 그때 가서야 한마디 나왔습니다.

당시에 산승이 부산 해운정사 마당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향곡 선사께서 들어오셔서 산승을 보자마자 ‘임제탁발화(臨濟托鉢話)’ 법문을 들어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당시에 임제 선사가 되었다면 노보살이 대문을 활카닥 닫고 들어갈 때에 뭐라고 한마디 하겠느냐?” 하고 마당에 서서 물으셨습니다. 들어가서 인사도 받고 물으셔도 될 것인데, 제방 조실스님들의 안목이 마음에 흠족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승이 즉시 답하기를 “30여 년 갈 말을 타고 희롱해 왔더니(三十年來弄馬騎)/ 금일에 당나귀에게 크게 받혔을 입읍입니다(今日却被驢子撲)” 하니, 선사께서 산승의 손을 붙잡으면서 “과연 나의 제자로다!” 하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대중여러분, 화두일념(話頭一念)만 지속이 되면 그 깨닫는 과정은 찰나인 것이니,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세상사에 정진없이 세월만 낭비하지 말고 일거수일투족(一舉一投足) ‘참 나’를 찾는 화두와 씨름해서 대오전성으로 천불만조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장부(大丈夫)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필경(畢竟)에 일구(一句)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과의 밝은 구슬은 하늘과 땅에 빛남이요.(一顆明珠輝乾坤)/ 100번이나 단련된 진금은 색이 영원토록 변치 않음(百鍊眞金色不變).

[拄杖子 法床을 한 번 치시고 下座하시다.]

정리=조동승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평생등으로 활기...

상감사안청자의가슴
 ■ 재질명: 순금불연법륜대
 ■ 대: 장·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등폭: 45cm
 ■ 등높이: 60cm
 ■ 무게: 25kg

법륜대 특징

1. 수미단에 천불보탑 평생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 좌우 상감청자 코끼리에 새길 설판자 명단을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4회(정월, 불초,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름 하나는
 혜택을 드립니다.(카드가능)